KEF 경총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및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

2021. 4.

< 요 약 >

□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및 신규채용 계획 조사(3월 17일~22일 기준)
※ 매출('19년 기준) 상위 100대 기업(공기업 제외) 중 설문에 응답한 82개사 분석

1 매출 100대 기업의 91.5% 재택근무 시행 중, 8.5% 미시행(사무직 기준)

- 응답 기업의 91.5%가 '현재 재택근무 시행 중'으로 지난해 9월 조사 당시 재택근무 시행 기업 비중(88.4%) 보다 소폭 증가
- 재택근무 미시행으로 응답한 기업은 8.5%로, 이 중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2.4%, '코로나19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시행' 6.1%

2 주로 교대 순환 방식으로 재택근무제 운영

-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방식은 '교대조 편성 등을 통한 순환방식(58.7%)'을 가장 많은 기업에서 활용
- 그 밖에 재택근무 운영방식으로 '필요인력을 선별하거나 개별 신청' 29.3%,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해 재택근무' 9.3% 등으로 조사됨.

  ⇒ 지난해 조사에 비해 재택근무 비율을 정해놓고 부서·팀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나 재택근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부 운영방식도 효율적으로 변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직원 재택근무' 비중 감소

3 재택근무 체감 업무생산성*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는 평가 40.9%

* 응답자(인사담당자)의 주관적 평가를 묻는 문항으로, 정상출근 대비 생산성 비율임.

- 이 외 정상근무 대비 재택근무 업무 생산성이 △80~89%라는 응답 39.4%, △70~79%로 평가 10.6%, △70% 미만 9.1%로 조사됨(평균 약 83.4%).

  ⇒ 지난해 조사에 비해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는 평가가 줄고(46.8%→40.9%), '80~89% 수준'이라는 응답 증가(25.5%→39.4%)

4 재택근무시 생산성 관리 방안, 근태 및 업무 진행사항 모두 관리(68.7%)

- 재택근무시 '근태와 업무진행을 근로자 자율에 맡기고 사후적으로 결과만 평가'하는 기업 23.2%, 성과관리 없이 최소한의 '근태만 관리'하는 기업 6.1%

5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활용 여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56.4%)

- 코로나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의 재택근무 활용 여부에 대해 56.4%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 지난해 조사의 같은 응답(33.9%) 대비 높아짐.
- 향후에도 재택근무가 활용·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은 43.6%('20.9월 기준 53.2%)

6 매출 100대 기업 2021년 신규채용 규모, '지난해와 비슷' 55.7%, '전년대비 증가' 27.9%, '전년대비 감소' 16.4%

- 최근 각종 조사에서 취업자수 감소세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주요 기업들은 인재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여 노력도 다하고 있음을 시사

1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2021년 3월 사무직 기준)

▸ 재택근무 시행 중 91.5% ▸ 미시행 8.5%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및 신규채용 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 비율은 91.5%

※ 조사 기간(2021년 3월 17일~22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상황이었으며, 일일 확진자수는 평균 429명 수준에 해당

<참고> 동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지난해('20.9월) 조사는 경총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로 당시 일일 확진자수 평균 128명 수준(9.7~9.8)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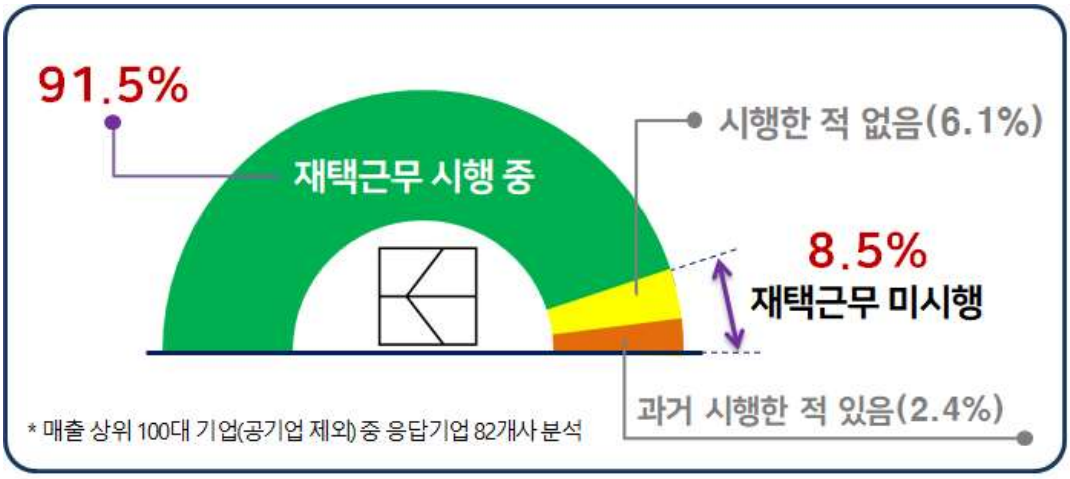
※ 본 조사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공기업 제외, 2019년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이메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응답 기업 수는 82개사

○ 응답 기업의 91.5%가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이하 사무직 기준).

-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보다 소폭 증가한 결과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많은 기업들이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

* ('20.9월 조사 결과) 재택근무 시행 중 88.4%, 미시행 8.7%, 시행 예정 2.9%

<그림 1>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시행 현황



○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은 8.5%였으며,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 기업' 비중이 2.4%로 나타남.

- 이들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중단한 이유는 '업무 비효율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재택근무 미시행 기업 중 '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6.1%로 조사됨.

- 해당 기업들은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쉽지 않다' 또는 '사업장내 밀집도 저하 조치나 소독 강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2 재택근무 방식

▸ 교대 순환형 58.7% ▸ 재택근무 필요인력 선별 또는 신청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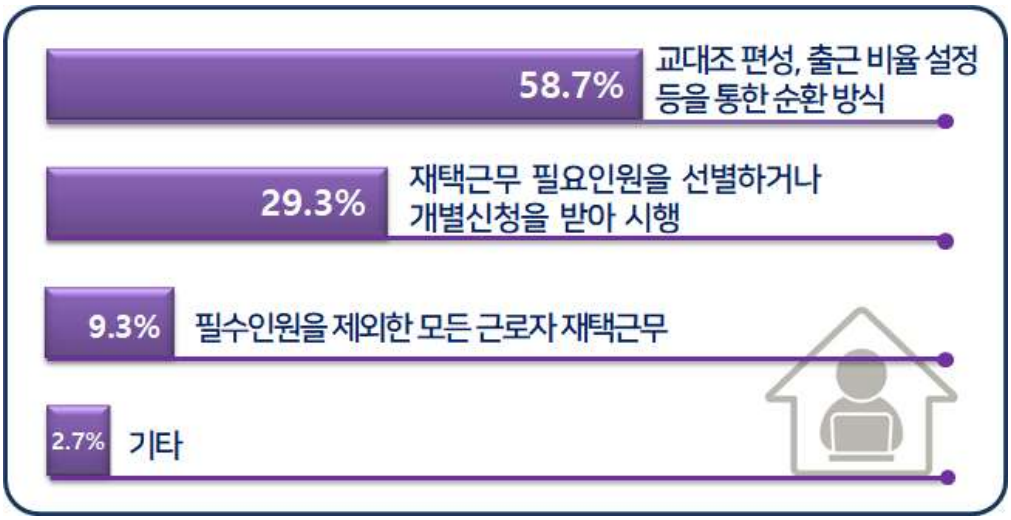
○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방식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올해('21.3월)도 '교대조 편성 등을 통한 순환방식'을 가장 많은 기업에서 채택(58.7%)

> * 2020년 9월 조사 결과
> (1) 교대조 편성 등을 통한 순환방식(출근자 비율 관리방식 포함) 44.4%,
> (2) 재택근무 필요인력 선별 또는 신청 방식 27.0%
> (3) 필수인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15.9%
> (4) 기타 12.7%

- 구성원을 2조 또는 3조로 나눠 교대방식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무실 출근인원을 일정비율(ex. 30%, 60%)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사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재택근무 인원을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조사에서는 전직원 재택근무조를 편성하여 규칙적인 교대·순환을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나, 금년도 조사에서는 재택근무 비율을 정해놓고 부서·팀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나 재택근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부 운영방식도 효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2> 주요기업 재택근무 방식



○ ‘필요인력을 선별하거나 개별 신청’에 따라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 비중이 29.3%로 나타남.

- 이는 건강·돌봄·임신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거나, 근로자 개인의 신청에 따라 재택근무 대상자를 결정

○ 한편,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3%로 조사되어, 지난해 조사(15.9%)보다 낮아짐.

- 전직원 재택근무 시행 기업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의 대응능력(방역, 인력운영)도 제고된 점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

○ 이 밖에 ‘특정 요일(ex. 주 1회)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는 응답도 있었음.

3 재택근무시 체감 업무생산성

▸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 40.9%, 전체 평균 83.4%**

▸ **지난해와 비교해, 90% 이상 감소⇩, 80~89% 증가⇧**

○ 재택근무시 근로자들의 업무생산성에 대해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는 응답이 40.9%를 차지함.

※ 해당 설문의 경우 응답자(인사담당자)의 주관적 평가를 묻는 문항으로, 정상출근시 생산성을 100으로 볼 때 재택근무시 생산성 비율임.

○ 또한 재택근무시 근로자 업무생산성을 정상출근 대비 '80~89%'로 응답한 비중이 39.4%, '70~79%'가 10.6%로 조사됨.

- 정상근무 대비 생산성이 '70% 미만'이라는 응답은 9.1%였으며, 생산성이 '절반(5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도 소수(1.5%) 존재하였음.

<표 1> 인사담당자가 평가한 재택근무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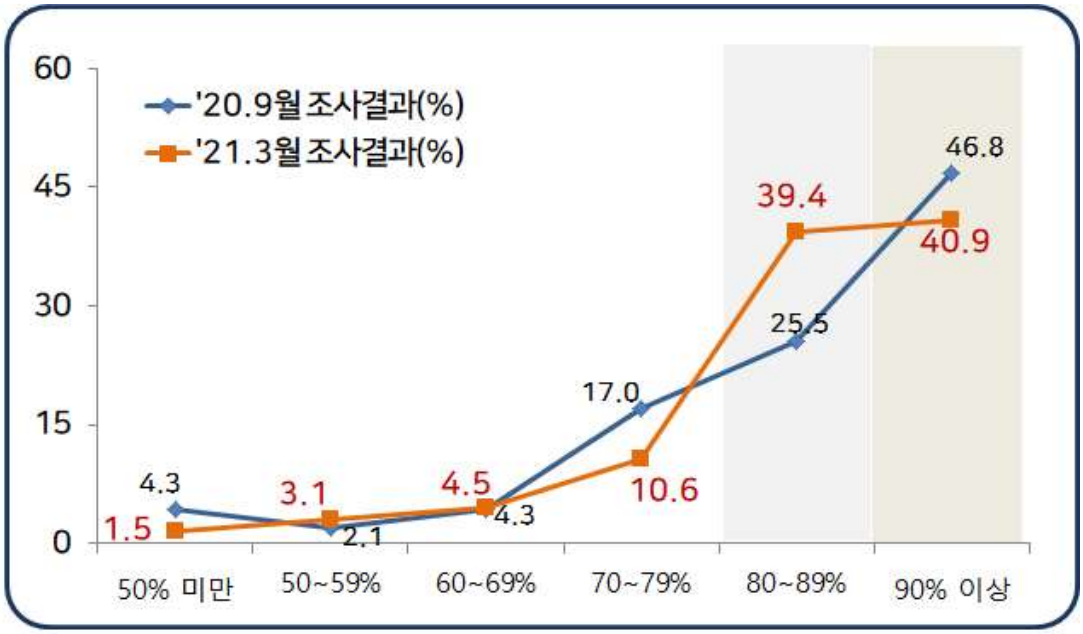
(2021년 3월 기준, 정상출근시 생산성 = 100, %)

구분	70% 미만			70~79%	80~89%	90% 이상
	50% 미만	50~59%	60~69%			
응답 비중 (전체 100%)	9.1			10.6	39.4	40.9
	1.5	3.1	4.5			

○ 재택근무 업무생산성에 대한 전체 응답을 평균할 경우 정상출근 대비 약 83.4% 수준으로 나타남.

○ 재택근무시 업무생산성을 지난해 조사와 비교한 결과,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는 가장 긍정적인 평가는 줄어들고(46.8%→40.9%), 80~89%라는 응답이 늘어남(25.5%→39.4%).

<그림 3> 인사담당자가 평가한 재택근무 생산성 비교



○ 이처럼 매출 100대 기업의 재택근무 생산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는 것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대면 상황에서도 원활한 업무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으로 업무와 성과관리 시스템을 갖춰놓은 결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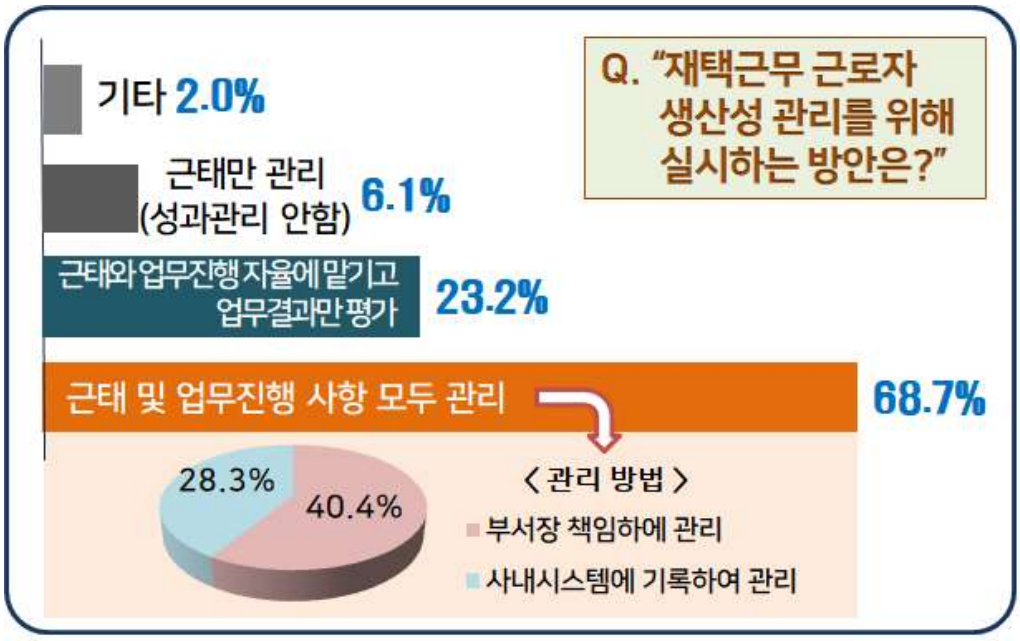
4 재택근무시 생산성 관리 방식

▸ 근태 및 업무진행 사항 모두 관리 68.7% ▸ 업무결과만 관리 23.2%

○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들이 '근태 및 업무진행 사항 모두를 관리(68.7%)'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근태와 업무진행 사항을 관리하는 세부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일지 작성, SNS 활용 등 재량적 방법으로 관리(40.4%)'하는 경우와 전사적으로 사용하는 근무시간·성과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사내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28.3%)'하는 경우로 구분됨.

<그림 4> 주요기업의 재택근로자 생산성 관리 방안



○ 재택근무시 근태, 업무수행 내용 등을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근로자 자율에 맡기고 사후적으로 결과만 평가'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23.2%로 나타남.

○ 이 밖에 성과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최소한의 '근태만 관리'한다는 기업이 6.1%로 나타났음.

5 코로나19 해소 후 재택근무 확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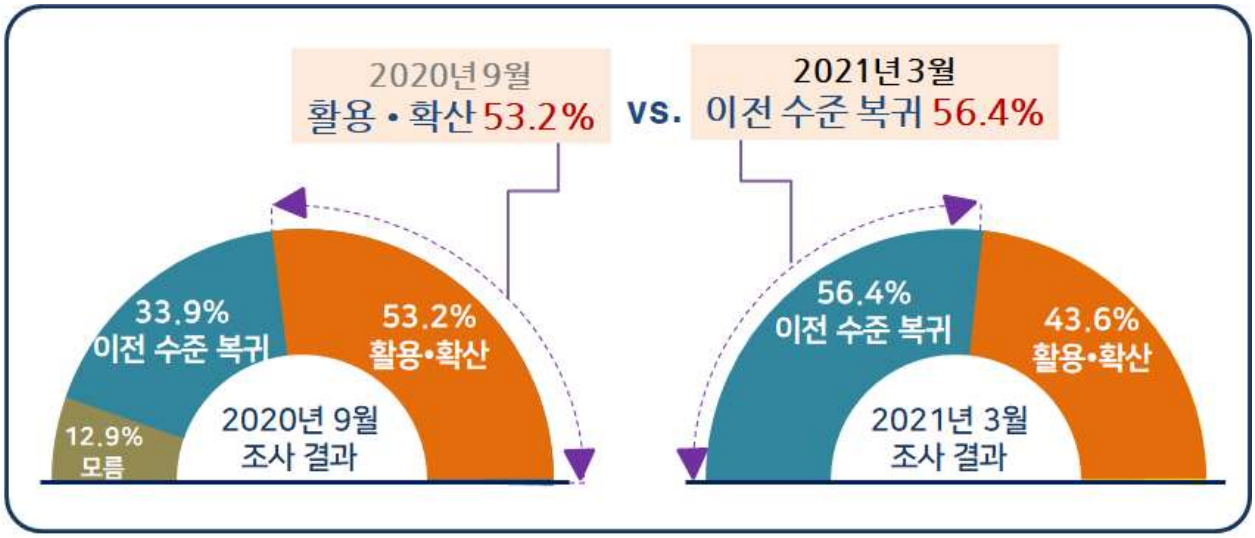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 56.4%, 확산 43.6%

○ 코로나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의 재택근무 활용·확산 여부에 대한 설문에 56.4%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응답

- 이에 반해, '코로나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도 재택근무 활용이 지속적으로 활용·확산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3.6%로 나타남.

○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조사 당시, '코로나19 해소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활용·확산될 것'이라는 응답이 53.2%로 과반수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임.

<그림 5> 향후 재택근무 활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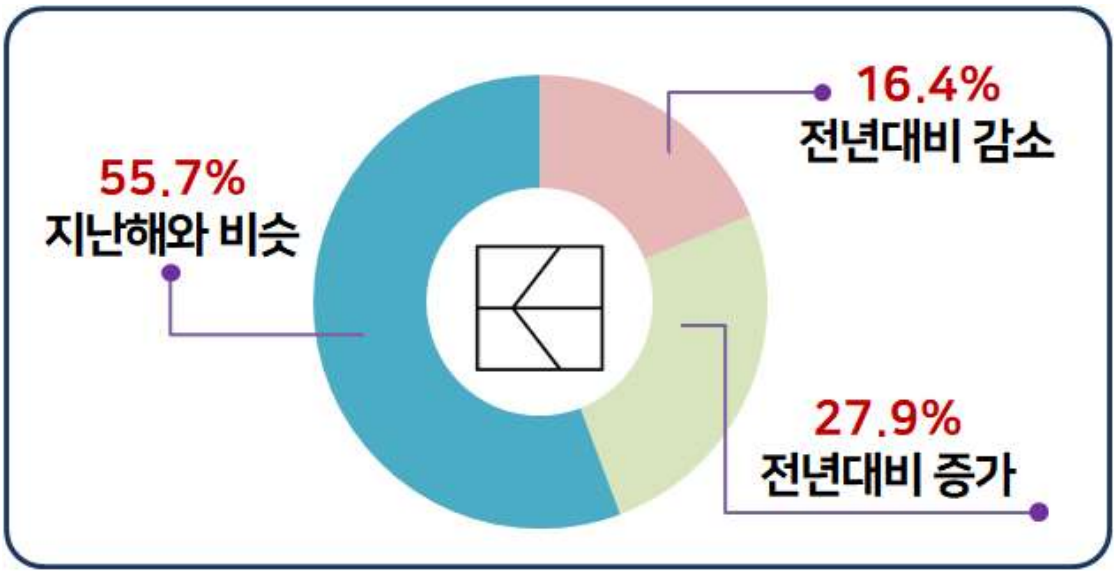
○ 지난해 조사와 금번 조사('21.3월)를 종합하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활용률이 제고된 것은 분명해 보이나, 코로나19가 해소된 이후 재택근무가 보다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재택근무 시행 초반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임.

6 매출 100대 기업 2021년 신규채용 계획
지난해 대비 ▸ 비슷하거나 증가 83.6% ▸ 감소 16.4%

○ 매출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신규채용 계획을 물은 결과 올해 채용 계획이 수립된 61개사가 설문에 답하였으며, 대상기업의 55.7%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

○ 올해 신규채용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7.9%,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도 16.4%로 나타남.

<그림 6> 매출 100대 기업 2021년 신규채용 계획



⇒ **이같은 결과는 최근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 규모가 큰 조사 대상 기업(매출 100대 기업)들은 주로 신규채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음을 나타냄.**

※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1년 2월 취업자수가 2,636만 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만 3천명(1.8%) 감소(1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감소)

- 이는 주요기업들이 대내외 어려움이 심화된 경영환경에서 이들 기업이 인재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여 노력도 다하고 있음을 시사

○ 한편,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대비 감소’로 응답한 기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실적 악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음.

- 이 밖에 ‘코로나19로 업무자체가 축소’된 부분을 고려하였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음.

---------- ◇ ----------

- 조사 개요 -

1. 조사목적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및 신규채용 계획 조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주요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택근무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재택근무 운영 및 인사 관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분석대상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민간기업(2019년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 기업 82개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3. 조사기간 : 2021년 3월 17일 ~ 3월 22일 < 6일간 >

4. 조사방법

전화를 통한 타계식 조사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음.